

쇼와 40년(1965년) 3월 17일

관리자: 유루기 지장 보존회

## 목조지장보살좌상(유루기 지장)

에도 시대(1603-1867) 이 지역에 '유루기노마쓰'라 불리는 고령의 소나무가 있었고, 이후에 마을 이름도 '유루기마쓰'라 불렸다. 이 소나무는 가지가 골짜기를 뒤덮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거목이었다고 한다. 뿌리가 땅 위로 나와 있었고, 그 뿌리 아래를 사람이 지나면 나무 끝까지 흔들렸기('흔들림'의 일본어가 '유루기')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.

유루기 소나무가 말라 죽자 이를 애석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목식승(풀이나 나무열매만 먹으며 수행하는 승려)에게 두 구의 지장보살을 조각하도록 의뢰했다. 두 지장보살 중 작은 조각상은 라쿠엔다이의 고토안 암자에 옮기고 큰 조각상은 소나무가 있었던 곳에 남겼다고 한다.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지장보살은 '유루기 지장'이라 불리게 되었다.

간엔 2년(1749년)의 "가쓰시카기(葛飾記)"에 '유루기 소나무'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이 소나무와 유루기 지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.

한 나무를 사용해 조각된 좌상 '유루기 지장'의 전체 높이는 172 cm, 머리 꼭대기에서 턱까지의 길이는 50 cm, 대좌의 높이는 29 cm이다. 그 용모는 온화하고 자애가 가득하다. 고토안 암자의 '곳바 지장'과 마찬가지로 목식승 간신(觀信)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지만, 세련된 조각 기술로 보아 전문 불사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.

레이와 6년(2024년) 3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